어린이 책꽂이

▲지도 없이 떠나는 101일간의 과학사 일주=불, 바퀴 등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발명품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발명품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책이다. 도구, 재료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영교출판·9천800원〉

▲뚱보 개가 날씬해졌어요=리누스라는 아이를 통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소아 비만의 위험을 보여주는 그림책. 잘못된 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하는지 뚱보 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뜨인돌·9천500원〉

▲얘들아,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니?=창비 좋은 어린이 책 대상을 수상한 작가 이현이 작가가 되기까지 직접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거짓말 밥 먹듯 하기' '여기저기 참견하기' 등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도 가르쳐 준다.

〈풀빛·9천500원〉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의 친구들=독일의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가브리엘 랩킨이 세계 곳곳에 있는 티베트 난민촌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을 모았다.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글을 통해 세계 지도에도 없는 나라 '티베트'를 소개했다.

〈초록개구리·1만원〉

▲빨리빨리 군, 만만디 씨, 스미마셍 양의 별난 문화 이야기=서두르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과 매사에 느긋한 중국 사람, '미안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일본 사람의 특징을 비교해가며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계림북스·1만1천원〉

잊으려는가, 삶의 그늘진 순간들

문태준 시집 그늘의 발달

아버지여, 감나무를 베지 마오
감나무가 너무 웃자라
감나무 그늘이 지붕을 덮는다고
감나무를 베는 아버지여
그늘이 지붕이 되면 어떤가요
눈물을 감출 수는 없어요
우리 집 지붕에는 폐렴 같은 구름
우리 집 식탁에는 매끼 묵은 밥
우리는 그늘을 앓고 먹는
한 몸의 그늘
그늘의 발달
아버지여, 감나무를 베지 마오
눈물은 웃음을 젖게 하고
그늘은 또 펼쳐 보이고
나는 엎드린 그늘이 되어
밤을 다 감고
나의 슬픈 시간을 기록해요
나의 일기(日記)에는
잠시 꿔온 빛
- '그늘의 발달'

2000년 이후 소월시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문학상을 휩쓸어 '서정시의 맥을 잇는 적자'로 평가 받는 문태준 시인이 네 번째 시집 '그늘의 발달'을 출간했다.

전작 시집 '맨발'(2004)과 '가재미'(2006)가 연달아 각각 2만부 이상 팔린 터라 그의 새 시집은 출간 이전부터 시단과 독자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년간 발표한 71편을 4부로 묶은 이 시집은 삶의 그늘진 순간들을 포착해 깊숙한 마음의 자리로 끌어내는 시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제목대로 '그늘'은 이번 시집의 큰 화두다. 표제작 '그늘의 발달'은 시인이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가 집에 그늘 덮이는 것을 꺼려 집 앞 감나무를 베는 걸 보며 착상한 시다.

최근 젊은 시인들이 문명의 이기와 폭력에 짓눌린 개인의 상처 혹은 그것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개인의 욕망을 탈문법, 탈서정으로 그려낸다면 '소'과의 문태준은 느리지만 힘있는 걸음으로 마실 다니며 끔벅끔벅 시를 쓴다.

이러한 그의 느린 걸음은 '물끄러미' '덜컥도 없이 너는 슬금슬금' 등의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어룽어룽' '조촘조촘' '물렁물렁' '들썽들썽' 등 다소 과장된 의성어와 의태어들을 통해 숨을 고르면서도 표현의 부드러움을 더하는 것도 그만의 특징이다.

이런 표현들은 메시지를 넌지시 감추는 역할도 해, 시 분위기를 한껏 세련되게 만든다.

정적이고 둥근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이번 시집을 평론가 김주연씨는 한 마디로 "둥글고 의뭉스럽다"고 평했다.

이전 시집 '가재미'에 '가재미' 연작이 있다면, 이번 시집엔 '나와 거북' 연작이 있다. 관상용 거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리에서 삶의 고단함과 비애를 어루만지는 서정이 스며 나온다.

'오늘 낮엔 처음 목을 빼 / 나를 빤히 들여다보더니 / 젯상의 병풍을 접듯 / 물 바깥의 나를 접어 / 겹겹의 주름 덩어리로 만들어 / 하나의 주머니인 몸속으로 / 천천히 지극히 천천히 / 데리고 들어갔네 ('나와 거북 1' 중)

시인은 어항 속 몽돌 위에 앉아 몸을 말리는 거북을 응시하며 소리없이 절규하기도 한다.

'시간이여,/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사람에게 마른 데를 보여다오 (중략) 걸레처럼 축축하게 밀고 가는 시간이여, 마른 배를 보여다오'('나의 거북 2'중).

또 화분을 가꾸는 일로 우리 시대 사랑을 비유한 '화분'도 애절하고 아름답다.

'사랑의 농원에 대하여 / 생각하였느니 / 나는 나로부터 변심하는 애인 / 나의 하루와 노동은 / 죽은 화분에 물을 부어주었느니(중략) 수심(愁心)을 들고 바람 속에 흔들리거나 / 내가 돌아앉으면 / 눈물을 달고 어룽어룽 내 뒤에 서 있었어라'('화분'중)

이 외에도 문태준의 이전 시집에서 만나온 자연의 모습과 유년시절의 소박하고 평화롭고 정감이 가득한 시 세계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문학과 지성사·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정효구 '시 읽는 기쁨'

고교 시절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나 유치환의 '바위' 같은 시가 좋아서 숙제도 아닌데 외운 적이 있다.

대학시절엔 짝사랑한 연상의 애인에게 한용운의 시를 엽서에 적어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전방에서 보병소대장으로 군복무 중일 땐 힘들어하던 내 병사들에게 푸슈킨의 '삶'을 외우게 했던 기억도 새롭다. 그 후 오랜 세월동안 시는 내게는 별 상관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행운이었다! 불혹의 나이에 들어선 어느 날, 한 작가 지망생의 시암송을 듣고 불현듯 시를 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나는 명시를 골라 일주일에 한 편씩 즐겁게 외워나갔다. 암송시가 많아지자 무슨 보물이라도 늘어난 듯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즈음 책방에서 문학평론가 정효구 교수가 쓴 '시 읽는 기쁨'(전 3권)을 만났다. 한창 시암송의 재미에 빠져있던 터라 제목에 마음이 끌렸다. 저자는 세 권의 책에서 아주 좋은 문장으로 시 75편의 해설과 감상을 적어놓았다.

개별 시에 대한 해설에서 벗어나 책 곳곳에 보석처럼 박힌 저자의 시에 대한 생각은 시와 시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만 익숙해

詩가 주는 생의 기쁨과 깊이

있던 내게 시를 '별처럼 높고 빛나는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그가 시인을 "심장에 물기가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 혹은 "은유적인 말 속에 비밀을 숨겨놓고 시치미 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때는 "그래, 그렇지!"하며 고개가 끄덕여졌다. "법이 사람을 사무적이게 만든다면, 시는 사람을 너그럽게 만든다"는 표현도 시에 대한 따뜻한 느낌을 더욱 새롭게 했다.

몇 년이 지나 500여 편쯤 외웠을 때 이웃들과 시암송의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 시암송운동본부를 설립하고 '한 달에 시 한 편, 명시 50편 외우기'란 표어와 함께 50편의 시카드를 만들어 원하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암송운동을 펼치고 있는 내게 저자의 메시지는 늘 힘이 되고 있다. 가령 "시를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우리들의 밋밋한 생에 적잖은 기쁨과 깊이를 선사할 것이다"라는 말은 '시를 외우면 뭐가 좋은가?'라는 물음에 적절하고 명쾌한 대답이 되어주었다. 그는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오솔길이든, 마음의 오솔길이든 혼자 고요히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 하나쯤 공들여 만들어보는 것"을 권한다. 이 권유는 내 마음을 무척 설레게 하고 행복한 다짐을 하게 했다. 지상의 순례를 마칠 때까지 시암송의 오솔길을 공들여 만들어보겠노라고.

이 책은 고맙게도 시에 대한 내 좁은 시야를 넓게 해주고, 내 가슴에 시암송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여러 좋은 시인과 명시를 만나게 해주었다. 이 책의 인연으로 내 애송시가 된 김상미 시인의 '질투'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다.

옆집 작은 꽃밭의 채송화를 보세요/ 저리도 쬐그만 웃음들로 가득찬/ 저리도 자유로운 흔들림/ 맑은 전율들 // 내 속에 있는 기쁨도/ 내 속에 있는 슬픔도 // 태양 아래 그냥 내버려두면// 저렇듯 소박한 한 덩어리의 작품이 될까요?/ 저렇듯 싱그러운 생 자체가 될까요?

문길섭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

'부부 배낭족' 967일간의 여행기

길은 사람 사이로… 김향미·양학용 지음

인도의 인력거꾼, 아프리카의 택시 운전사, 네팔의 순박한 엄마….

'길은 사람 사이로 흐른다'는 김향미·양학용씨 부부의 2년8개월간의 여행기이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서른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부부는 전셋돈을 찾아 배낭을 꾸리고 길을 떠난다.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를 거쳐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몽골까지.

이들은 로키 산맥과 히말라야에서 트래킹하고 홍해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배운다. 또 중고차를 사서 유럽을 돌기도 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4개월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며 영어를, 볼리비아에 머물면서는 스페인어를 익혔다. 여행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게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967일 동안 47개국을 여행하면서 이들은 고작 3천600만원을 쓴다. 기막히게 여행 경비를 줄이는 법 등이 흥미롭다. 〈예담·1만3천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 정보요원 눈에 비친 북한 사회

평양의 이방인 제임스 처치 지음

이름도 얼굴도 없는 작가의 책으로 더욱 유명하다. 북한을 배경으로 삼은 소설이며, 작가의 얼굴이나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남북한과 아시아 각국에서 수십 년간 정보 활동을 한 정보요원 출신이라는 점이 작가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

제임스 처치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평양에서 일어난 외국인 살해 사건의 내막을 쫓는 북한인 수사관의 활약을 신간 '평양의 이방인'에 담았다. 소설은 평양 인민보안성 소속의 수사관 '오 검사원'에게 평양 고려호텔에 외국인 시체가 있으니 수사에 착수하라는 특명이 떨어지면서 시작된다.

작가는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은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다. 일부러 세세한 부분의 묘사는 피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근, 탈북, 부정부패 등 북한 사회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쓴 최초의 영미 소설이다. 〈황금가지·1만1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OMECON RESEARCH & REAL ESTATE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 · 開發 · 리서치 선언!

공동대표 김윤삼
·호남대 부동산학 석사
·한국 농촌공사17년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출강
·부동산개발회사분양팀
·부동산중개법인3년

공동대표 박갈수
·상근변호사 法 大學
·공정 10년(기획, 분양, 감무)
·부동산업 실무교육 자격
·TV매체, 재테크잡지 등
·(부동산업)기획, 분석 컨설팅

공인중개사 소장 정문호
·동사시험 합격 5년
·토지거래허가등 권리 담당

공인중개사 소장 김기영
·IBA부동산전문교육 이수
·상가임차분석 담당

- 받은 것보다 큰 이익을 줍니다.
- 얼굴을 걸고, 책임 있게 합니다.
- 천천히, 정밀하게 합니다.
- 차분하고 정돈된 사람들입니다.
- 고객에게 늘 __ 을 줍니다.

(2억이상) 분석된 물건 수 (정리중) 건
(2억이상) 의뢰 고객수 (정리중) 분

※ 프로젝트 중개, 개발, 리서치 등 고객의뢰 후 시장, 입지, 사업타당성, 위험성분석 등을 개발후, 최적 물건 및 상품 조건 등을 전문리포트로 추천하여, 책임있게 사업하는 중개 등을 말함.

大勝 LICENSED REAL ESTATE AGENT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함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건축상담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190만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답 1,762㎡ 4,231㎡ ㎡당 70만(분할가)
▶광산구 선암동 대지 374㎡ ㎡당 30만원 주거지역 (건물있음)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지역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광산구 지정동 전(묘지) 643㎡ ㎡당28,000원
▶광산구 지정동 산 8,595㎡ ㎡당 28,000원 현재 전으로 사용 15t트럭 진입가능 도로접
▶광산구 유계동 답4,300㎡ ㎡당 41,000원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광주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4,000㎡ 30m 계획도로 90m접 ㎡당 24만원

상가매매
▶운남동 주공9단지 1,500세대 정문앞 미용실 (현재 성업중) 급매매 약25평(실평수20평) 매매가2억 (융 8,000만원)
▶운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시비 있음) 매매가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생계형, 음식, 호프, 포차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 · 메뉴개발 · 매각상담 · 경영진단 · 인테리어

▶서구 매월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 5십만
▶서구 쌍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서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서구 치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서구 마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광산구 쌍암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메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창업 상담(창업비용 2천만원에서 10억까지 다양함) 매매·임대 수시 접수합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 (代)261-8949 핸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동구 산수동 36m대로변 나지지720.6㎡ 매매가 6억 5,000만원(급매) 주유소 병원부지 물류 최고적지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 약 1,941㎡ 매가 2억 4,000만원
·북구 양월동(향우공)2차선접 1종주거지역1,280㎡매매가 8억
·담양군 남면 구산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6,869㎡(2차선접) 매매가 1억 5,000만원(급)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임야 83,558㎡(2차선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 3,000만원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임야 18,000㎡(국도접) 관리지역 매매가 1억 9,000만원
·담양군 읍 삼인리 전원주택지 1,400㎡(4차선접) 매매가 1억 5,000만원

▶원룸부지매매
·동구 산수동 238㎡(원룸허가됨 16세대) 매가 1억 2,000만원
·서구 화정동 208㎡(투룸 12세대 허가됨) 매가 1억 2,000만원
·동구 지산동 126㎡(원룸 8세대 허가됨) 매매가 5,000만원
·동구 산수동 222㎡ 10m도로변 준주거 매가 1억 1,500만원

▶건물매매
·남구 봉선동 대 148㎡ 건343㎡(지하1층 지상 3층) 소방도로 4거리 코너 매가 1억 6,000만원
·북구 문흥동 대지 396㎡ 건 1,781㎡(지하1층지상 6층) 세 보증금 2억1,400만원에 월844만원 매가 4억(융5억4,000포함)
·북구 우암동 상권좋고 4거리 코너 대지 1,023㎡ 건5,473㎡ 세보증금 20억 월 4,000만원 매가 60억(융자 18억포함)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 512㎡ 건1,139㎡(지하1층 지상4층) 세 보증금 1억 9,000만원 월 650만원 매매가 9억 7,000만원 (융자 5억포함)
·북구 풍향동 대지 127㎡ 건 192㎡지상 3층 매매가 1억 5,000만원(소방도로x15m 코너)
·북구 용봉동 대지 430㎡ 건평 318.3㎡(대로변코너) 2층건물 세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00만원 매 8억 5,000만원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남구 주월동 대지 237㎡ 건525.66㎡ 1층 당구장 2-4층 원룸 세 보증금 4,000만원 월 500만원 매매가 5억
·남구 주월동 대304㎡ 건496㎡ 1층 점포2~4층 원룸 및 투룸 세 보증금8,100만원 월70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신축)
·동구 산수동 대176.2㎡ 건524㎡ 투룸 6세대 세 보증금 1억 2,300만원에 월120만원 매3억2,000만원(융 5,000만원포함)
·북구 용봉동 쉐모 대 332㎡ 건 902㎡ 건물 2층 고시원 실 85실 월수입 약 159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융자 3억 8,000만원 포함 급매)

▶주유소매매
·광산구 소촌동 대 1,378.5㎡ 건 297㎡ 주유소 성업중 매매가 13억(융자 7억 포함)
※ 주유소 부지, 시의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상담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물건 다량 보유